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일 시 : 2017. 8. 30.(수), 10:00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제23회 충청중국포럼

◆ '충청중국포럼'은 2015년 5월 출범 이후 충남도와 시, 군 중국교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교류의 장으로 개최, 운영되어 왔음

◆ 이번 '충청중국포럼'에는 오는 가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내 차세대 지도자의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8. 30.(수)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 제 :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 연 사 : 홍인표 교수(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前경향신문 부국장)
- 참 석 : 충남도 및 산하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및 관심 있는 분 모두

■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10:05	개 회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인사말씀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10:05~11:35	발제 ▶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 (고려대 교수)
11:35~12:00	종합토론 ▶발표자, 참석자	좌 장: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12:00	폐 회	

■ **홍인표 교수 프로필**

◆ **직 위** :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前경향신문 부국장)

◆ **학 력**

- ❖ 고려대학교 영문과(학사)
- ❖ 고려대학교 중문과(석사)
- ❖ 고려대학교 중문과(박사)

◆ **경 력**

- ❖ 2001년 8월~2002년 8월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방문학자(베이징)
- ❖ 2002년 8월~2009년 11월 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베이징)
- ❖ 2011년 10월~2017년 6월 MBC라디오: 시선집중 고정 출연(서울)
- ❖ 2012년 9월~2012년 12월 명지대 강사(서울)
- ❖ 2013년 1월~2015년 1월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중국전문기자(서울)
- ❖ 2015년 3월~현재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서울)

◆ **연구실적**

- ❖ 중국이 본 한국전쟁(역서), 한국학술정보(2008)
- ❖ 중국의 언어정책, 한국학술정보(2008)
- ❖ 중국의 미래권력, 한울(2012)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 인 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前경향신문 부국장)



중국의 ★ 미래 권력 전망

홍인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 제 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제 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제 3부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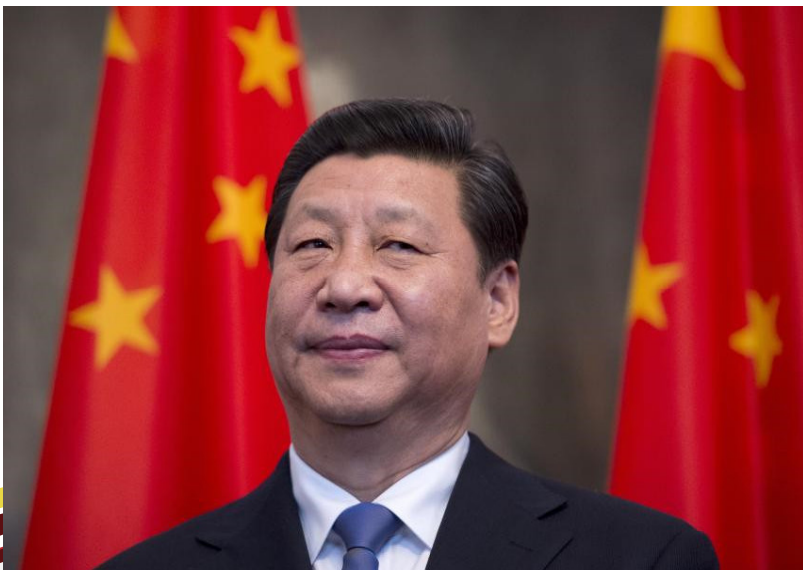
제 1부

시진핑 시대 평가

3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1. 시진핑은 누구인가



4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1. 시진핑은 누구인가

- 1953년 6월 베이징 출생

아버지 시중원(1913~2002. 당시 중앙선전부장, 정무원 문교위원회 부주임), 어머니 치신(1926~) 팔로군 전사 출신

- 1962년 아버지 실각으로 집안 풍비박산
문화혁명으로 산시성 옌촨에서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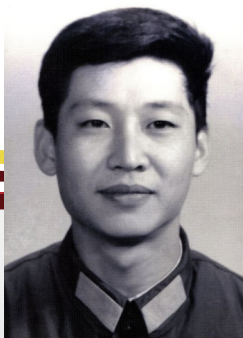


5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1975년 칭화대 화공과 입학(농공병 학생), 농촌 탈출에 성공 첫 직장은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경바오의 비서

- 1983년 허베이성 정딩현 부서기로 지방 생활 시작
- 이후 2007년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까지 지방서 생활(푸젠성, 저장성, 상하이)



6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누나 차오차오(1949~)는 부동산 개발업. 2007년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이후 태자당 가문과의 연락책.
- 두번째 부인 펑리위안(1962~)은 시진핑의 비밀병기(상하이방 지원을 얻어낸 역할)



7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2. 시진핑 집권 5년 성과

-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회
 -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 선출
 - 당정군의 1인자로서 조기 당 장악 성공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청사진 제시) 시진핑 시대 개막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중앙 소조를 통한 집권 강화

집권 초기 중앙심개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만들어 당 중앙위원회가 통괄 지휘

- 문화혁명 이후 최대의 반부패 정풍운동 (호랑이도 파리도 잡겠다)

- 대대적인 군대개혁 단행 (인민해방군 4대 총부 해체, 지역별 전구 창설)

- 외교 무대 위상 제고 (경제력에 힘입어 할 말은 한다. 남중국해 패권 놓고 미국과 대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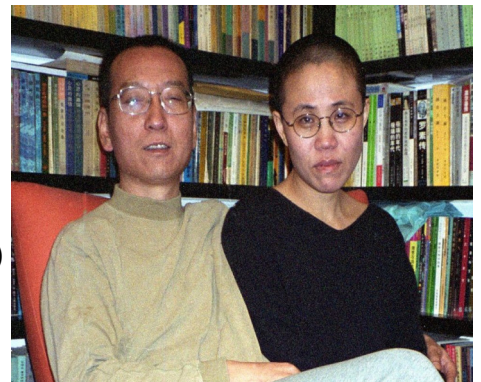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3. 시진핑 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 물거품으로 끝난 정치개혁, 정치자유화에 대한 기대감 (마르크스주의 신봉자,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 철저한 인터넷 통제 (유튜브 금지)

-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 (중국 사람들은 류사오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10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학문의 자유 통제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글쓰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 갈수록 심각해진 사회 양극화

(지니계수 0.61.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양극화 수준)

- 주변국과의 잦은 마찰

(중국 사람들의 민족주의에 힘입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11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4.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

- 상하이 학자들의 시진핑 평가

(2009년 위클리크스 문서.

상하이 학자들과 당시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와의 대화)

1. (C) According to a well connected Embassy contact,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mber and Vice President Xi Jinping is "exceptionally ambitious," confident and focused, and has had his "eye on the prize" from early adulthood. Unlike many youth who "made up for lost time by having fun"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Xi "chose to survive by becoming redder than the red." He joined the Party and began mapping out a career plan that would take him to the top of the system. In our contact's view, Xi is supremely pragmatic and a realist, driven not by ideology but by a combination of ambition and "self-protection." Xi is a true "elitist" at heart, according to our contact, believing that rule by a dedicated and committed Communist Party leadership is the key to enduring social stability and national strength. The most permanent influences shaping Xi's worldview were his "princeling" pedigree and formative years growing up with families of first-generation CCP revolutionaries in Beijing's exclusive residential compounds. Our contact is convinced that Xi has a genuine sense of "entitlement," believing that members of his generation are the "legitimate heirs" to the revolutionary achievements of their parents and therefore "deserve to rule China."

12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덩싱하오 상하이 미국 연구소장

시진핑의 지방 행정에 대해 노자의 이념인 無爲而治<자연에 순응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지다>라고 평가했다

신중한 성격(튀거나 나서지 않는다), 부드럽고 순한 인상

평가절하하기 쉽다

화려한 카리스마는 없지만 당정군의 다양한 계파와 권력집단을 하나로 모으는 데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



13

제1부 시진핑 시대 평가

-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 시진핑 핵심 확정. 시진핑 사상 추진
(시진핑 사상을 당헌, 헌법에 넣을 것으로 예상)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부상



14

제 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15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1. 정치안정을 위한 권력승계방식

- 격대(대를 건너 뛰는) 지명 방식

총서기가 차기 후계자를 지명.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는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 제5세대 지도자인 시진핑은 제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 지명.



16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연령제한 규정

정치국 상무위원은 67세까지는 가능. 68세 이상은 불가능. 정치국 위원은 63세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이 규정은 유명무실. 63세 이상 신임 정치국 위원이 적지 않다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 민주추천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 전국인대 정협 간부가 추천해서 이를 전현직 지도부가 논의하는 방식. 최종 인선은 중앙위원회가 확정

냉온탕(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20년 이상 양성한 인재풀을 철저하게 활용(서방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벼락 출세는 없다).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2.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 해마다 7월말이나 8월초 허베이성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전현직 지도부가 모여서 비공식 회의(공식적인 발표가 없음. 브레인 스토밍 회의)
- 2017년은 8월2일 개막해서 8월13일 끝난 것으로 추정 (베이다이허 일대 경계 태세로 가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개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이상 최고지도부와 당 원로 등이 여름 휴가철에 베이다이허에 모여 주요 국가 현안, 당 노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
개최시기	매년 7~8월 중 10~20일간
개최장소	허베이(河北)성 천황다오(秦皇島) 베이다이허(보하이만 연안)
연혁	1958년 시작. 1987년부터 연례회의로 결정됨.

19

제2부 중국의 권력교체 시스템

2.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 회의

- 올해는 11월 열리는 19차 당대회 지도부 인선, 시진핑 사상의 당헌 편입, 북핵 문제를 놓고 지도부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
- 장쩌민 전 주석(1926~)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시진핑으로는 호재



20

제 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21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 11월8일 개막 전망. 회의는 1주일 정도
-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시진핑. 리커창을 제외한 5명 교체 예상)

Standing Committee



Xi Jinping 63
President



Li Keqiang 61
Premier



Zhang Dejiang 70
Chairman,
National
People's
Congress



Yu Zhengsheng 71
Chairman,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Liu Yunshan 69
Secretary,
Central
Secretariat



Wang Qishan 69
Secretary,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Zhang Gaoli 70
Vice Premier

22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1.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948~)가 유임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23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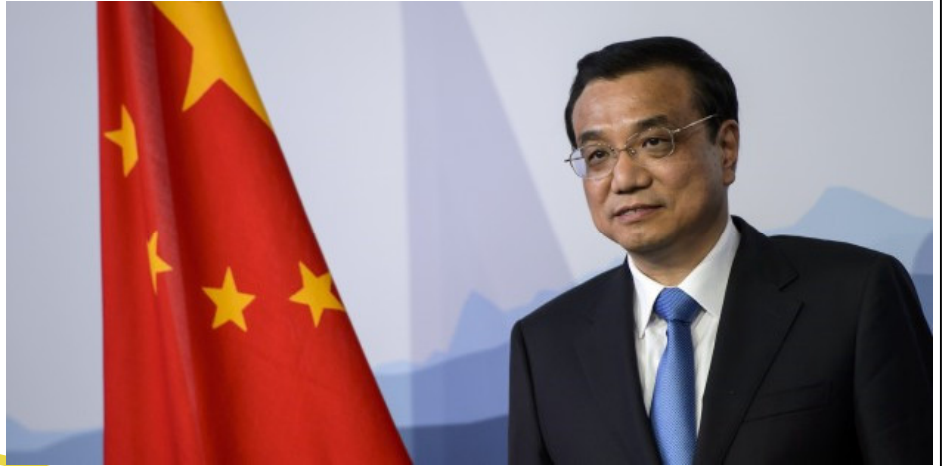
1.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948~)가 유임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 → 유임 예상

- 왕치산 서기. 그동안 반부패 투쟁 주도. 당내 반대파가 많아 유임만이 유일한 살 길
- 시진핑 주석도 반부패 투쟁 마무리를 위해 왕치산 서기의 도움이 필요
- 다만 68세 이상이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불문율이 걸림돌

24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2. 총리가 바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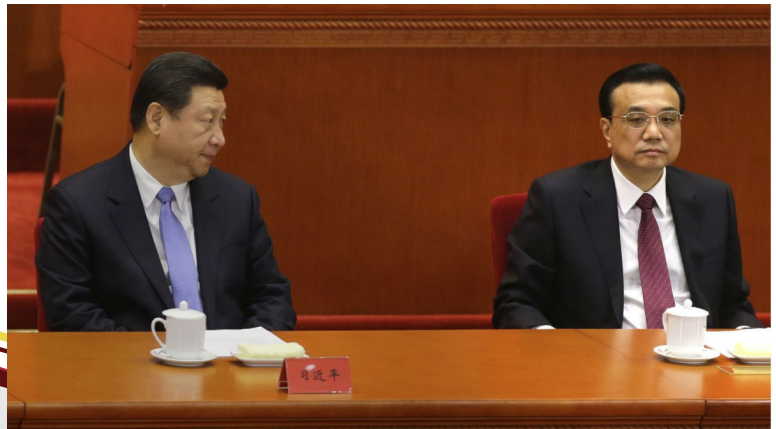


25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2. 총리가 바뀔 것인가 → 유임 예상

- 시진핑 독주로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왕치산이 유임하면서 총리로 기용될 가능성 대두. 교체 가능성 낮다(공청단의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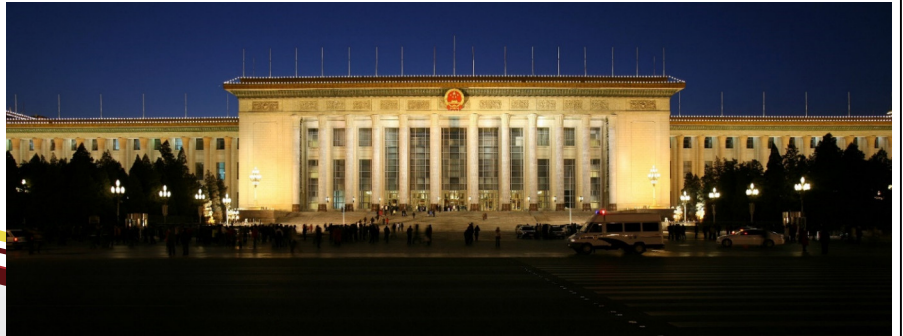


26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3.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헌에 들어갈 것인가. 헌법에 들어갈 것인가.

- 시진핑 사상이 이번 당대회에서 들어갈 가능성 높다. 헌법은 내년 3월 전국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들어갈 가능성 있다.



27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4. 차세대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이번 당대회는 차기 제6세대 지도부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
- 6세대 지도부 선두주자인 후춘화 광둥성 서기(1963~)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인가가 관건.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반반
- 당초 후춘화, 쑨정차이가 둘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경우 이번이 없는 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후춘화는 총서기, 쑨정차이는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



28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4. 차세대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하지만 쑨정차이 충칭직할시 서기가 비리혐의로 낙마하면서 권력 판도가 새롭게 편성될 것으로 전망
-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치산 서기,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한정 상하이 서기, 왕양 부총리가 유력. 이럴 경우 후춘화 서기는 탈락
- 정치국 상무위원을 현행 7명에서 5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시진핑 권력 공고화의 일환



제3부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5. 당 주석이 부활할 것인가.

- 현재 중국 공산당 1인자는 총서기. 하지만 과거 마오쩌둥은 당 주석을 맡은 바 있다
- 시진핑이 총서기로 있을 경우 2022년 물러나야 한다는 게 고민
- 사실상 종신제인 당 주석을 부활할 경우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건군절 열병식에서 군인들의 인사가 서우장하오(首长好)에서 주시하오(主席好)로 바뀐 것도 당 주석제 부활의 신호탄



감사합니다

31

『중국 정치 용어 키워드』

1.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中國共產黨全國代表大會):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는 이론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들은 대회가 열리기 전에 허베이성 베이다이하(北戴河)에서 전현직 지도부가 모여서 미리 만든다.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심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여 심사한다. 그리고 공산당의 중요한 문제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공산당의 규약을 개정한다. 또한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5년이다.

1987년 이후 전국대표대회는 항상 10월 또는 11월에 열렸다. 개최 장소는 1956년의 첫 시작 이래, 항상 베이징의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 열린다. 지난 30년 동안 이 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에서 상징적인 부분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하였으며, 국제적인 미디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國共產黨中央政治局常務委員會):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당 조직에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 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치국 상무위원로 불린다.

중국 공산당의 당규정에 의하면, 중앙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폐회 중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위원회의 직권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당연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된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국위원회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가부주석, 국무원 상무부총리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부터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3. 태자당(太子黨):

중국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제와 친인척들로 구성된 정치 계파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부모의 후광을 제대로 받는 집단이다. 이들은 당·정·군·재계 고위층의 자녀들로 덩샤오핑의 자녀 및 사위를 비롯해 약 4000명이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온건 개혁파이다. 태자당 구성원은 주로 시진핑(習近平: 고(故)시중쉰(習仲勛) 부총리의 아들), 보시라이(簿熙來: 고(故)보이보(簿一波) 부총리의 아들), 덩푸팡(鄧樸方: 덩샤오핑(鄧小平)의 큰 아들) 등이 포함된다.

4. 단파(團派):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中國共產主義青年團)은 중국공산당의 주도 아래 14세~28세의 젊은 단원의 지도를 맡는 청년 엘리트 조직이다. 공청단이라고 줄여 부르며, 거의 대부분의 공청단 출신은 급진 개혁파이다. 단파는 주로 후진타오(胡錦濤: 前국가 주석), 리커창(李克強: 現국무원 총리), 후춘화(胡春華: 現광둥성 서기) 등이 포함된다.

5. 쟁파(江派)

쟁저민(江澤民) 前중국공산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을 말한다.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고 이를 지지했던 자오쯔양(趙紫陽)을 사임시킨 뒤 강경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상하이 시장 쟁저민을 차기 후계자로 지명한다. 쟁저민은 상하이 시장 시절 같이 일했던 인물들을 대거 상경시키는데 이들을 상하이방(上海幫)이나 쟁파(江派)라고 부른다. 쟁파는 주로 주룽지(朱鎔基: 前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現국무원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 現국무원 부총리)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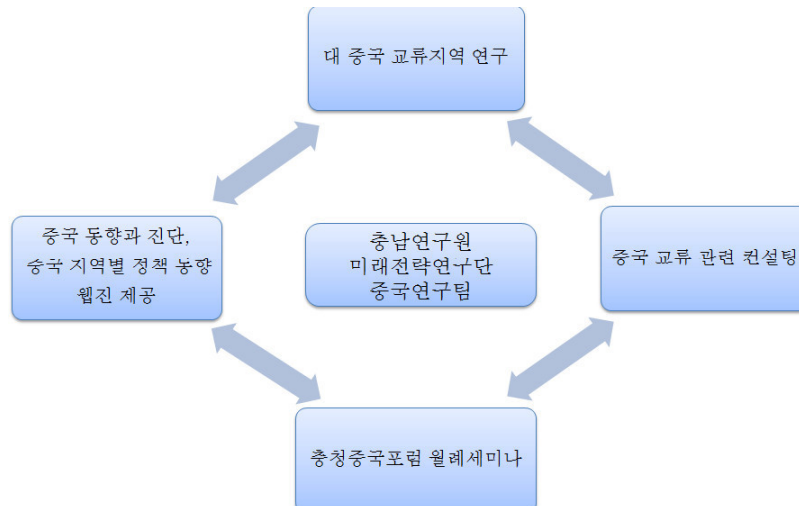
자료: 위키백과, NAVER 지식백과, 360百科



충청중국포럼 소개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중국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 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편으론 충청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레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청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중국포럼’ 추진현황〉

회	일시	세미나 주제	강사
1회	2015.5.26	<충청중국포럼 출범식>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충청도시의 미래	강희정(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회	2015.6.25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시사점	김한수(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3회	2015.8.26	징진지 일체화 정책 추진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4회	2015.9.14	한중3농포럼	
5회	2015.10.28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 중국 성장전략 전환과 한국의 기회	리홍보(중국쿤밍이공대학 교수)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박사)
6회	2015.11.25	지방의 대(對)중국 전략	한광수(금강대학교 총장)
7회	2016.1.27	역사적 관점에서 본 환황해권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이경복(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팀장)
8회	2016.2.2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민원 유형과 대응전략	양광식(광양자유무역청 투자유치팀장)
9회	2016.3.30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공주대학교 교수)
10회	2016.4.20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11회	2016.5.25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한반도 정책	조현규(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 前주중한국대사관/주대만한국대표부 무관)
12회	2016.6.29	충남관광 현황과 중국인관광객 유치전략	고두환 (공정여행사 공감만세 대표)
13회	2016.8.31	일대일로를 둘러싼 중국 동북3성의 동향과 충남에의 시사점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14회	2016.9.28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박인성(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15회	2016.10.26	중국의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서동욱(특허청 과장, 前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16회	2016.11.30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환황해권 항만의 대응전략	이주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장)
17회	2017.1.18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와 전망	고정식(배재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18회	2017.2.22	교육과 해외인재유치를 통한 중국의 발전전략	구자역(서경대 인성교양대학 학장)
19회	2017.3.29	중국 농업과 농촌의 변화: 옌타이(烟台).펑라이(蓬萊)의 포도와 와인산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회	2017.4.25	대중국 지방외교의 과제와 전략	홍원표(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1회	2017.5.30	환황해권 지방외교 활성화 합동 워크숍	
22회	2017.6.29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조광옥(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23회	2017.8.30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	홍인표(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교수, 前 경향신문 부국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